



전남도가 섬 주민을 주체로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섬의 특수성과 매력을 보존하면서 방문객의 증가 및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솔로시티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완도 청산도 유채밭과 푸른 바다의 환상적인 풍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물엔 없는 섬만의 매력 지켜야 사람 몰린다

섬과 숲을 민선 6기 브랜드로 선택한 이낙연 전남지사가 휴일인 지난 11일 '태극기 섬'인 완도 군도와 울진도의 해경도를 방문하는 등 '귀고 싶은 섬' 취재를 주도하기 위한 섬 방문 행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여수 금모도를 시작으로 여수 여죽도, 신안 비금·도초·우이·장산·신도의, 여수 삼가·하하·사·남·동면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등 이날까지 5개 시·군 16개 섬을 돌리겠다. 이 지사는 당분간 휴일에는 계속 섬을 찾을 예정이다.

이처럼 이 지사가 곳곳의 섬을 찾아 섬 개발 구상을 다듬는 결정적 배경에는 섬 만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섬은 큰 물의 문명과는 달리 장기간 고립되면서 독특한 문화, 시설, 역사 등을 간직하고 있으며, 물과 교통이 원할하지고 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급속히 물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섬을 찾는 이들이 늘어남수록, 섬에서 물과 같은 '편리함'이 익숙해질수록 섬의 자연, 문화, 물과는 다른 감성 등은 사라지고, 결국 매력을 상실한 섬에는 찾아가는 이가 감소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이 지사는 섬 주민에 주목했다.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진 주민이 스스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면서 주제적으로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섬의 특수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섬 주민들이 주제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의도를 추구하는 주민들이 없어도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이 지사와 전남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증가하는 섬 방문객, 줄어드는 섬 주민 = 국내 해양관광 비
중은 지난 2006년 37%에서 7년만인 2013년 40%로 증가했다. 소
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바다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221여개에 달하는 전남지역 섬 방문객은 지난 2006년 562
만5000명에서 2013년 843만2000명으로 무려 49.9%가 늘었다.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해도 될 수준이다.

슬로시티로 명성을 쌓은 완도 청산도, 자연 그대로의 비렁길로 유명한 여수 금오도, 관광객의 수요와 자연자원을 비교적 조화롭게 구성한 신안 증도 등이 새롭게 가세하고, 홍도나 흑산도 등 기

존 섬들도 매력을 한껏 발산했기 때문이다. 잘 보존된 아름다운
풍광, 고유한 문화와 역사, 해식애, 피식대, 사투리, 독특한 음식
등도 도시민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2013년 방문객 가운데 외지인은 609만1000명, 도서민은 234만1000명이었다. 문제는 외지인은 지난 2008년 380만5000명에서 200만명 이상 증가했으나 도서민은 266만명에서 오히려 30여만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행자는 연평균 45만7000명 증가(연평균 10.1%)씩 증가 추세에 있어 5년 후 838만명, 10년 후 1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반면 도시민은 연평균 6만4000명 감소(연평균 2.5%)해 5년 후 5년 202만명, 10년 후 170만명에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섬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섬 주민이 점차 사라지고, '물의 문화'가 급속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민이 정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과 외
지인이 방문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최근 굴이나 김 양식 등을 위해 섬을 찾아 귀어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전체 섬 주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서남해안의 굴·김 양식장 전경.

추진해야만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물에서 볼 수 없는 섬의 자연자원들=사람의 '자극' 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섬의 자연은 그것만으로도 큰 매력 요소다. 수산자원은 물론 서남해안의 1036.9㎢에 이르는 갯벌, 12개 시·군의 65개 해수욕장과 함께 어부집과 방품집이 바로 그것이다. 어부집은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도록 물가에 나무를 심어 조성한 숲, 방품집은 마을과 농경지를 버텨버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공·천연림을 말한다. 안동 주도의 상록수림, 예송리·미라리·맹선리 상록수림,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정도다.

완도 정자리 황치나무, 예송리 감탕나무, 진도는 백조도래지, 진도군 임회면 비자나무, 관매리 후박나무, 신안군 흥도 천연보호구역, 칠발도 해조류(바다제비, 삼새, 칼새) 번식지, 굴도 해조류(별치조도, 바다제비, 삼새) 번식지, 영광군 칠산도 꿩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등 저어새 서식지, 여수시 남도리 공룡발자국 화석기 및 퇴적층 등도 천연기념물로 포함됐다. 청산도의 상서마을 옛 담장, 소록도 자해의원 보관, 신안 도초 고리석 장승 등 섬에 고여만 볼 수 있는 문화재도 신안군 17개를 시작으로 완도 11개, 고흥 9개 등 모두 51개가 산재하고 있다.

신안 홍도는 동백나무 숲, 풍란, 깃대봉, 봉돌해수욕장, 일몰 감상, 해상 유람, 스쿠버다이빙을 보거나 즐길 수 있으며, 흑산도는 역사적보, 옥섬, 만월산성, 바다낚시 등이, 비금도는 흑각발전기, 하직도, 원평해수욕장 등이 자랑거리다. 증도의 염전, 순어잡이, 갯벌, 여수 거문도의 등대, 향토유물관, 고인돌, 완도 보길도의 윤선도 유적지, 우암 송시열 글쓰바위, 황칠나무, 공룡알 해변, 완도 청산도의 솔로시미, 서편제 촬영지, 구돌장은 등도 인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섬 관광객 조사에서 섬을 찾는 이유로 휴식·휴양이 36.5%로 가장 많았고, 경관 감상(30.9%), 섬 문화 체험(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에서 이들 자원을 얼마나 보존하면서, 외지 방문객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지가 섬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철석기자chadol@kwangju.co.kr

**‘블루오션’
다도해 <3>**

1부 다도해는 지금

서남해안의 섬들 ㉞

고유의 문화유산·넘치는 자연자원...

휴양·경관·체험... 섬의 가치 높여야

관광객 몰리고 주민 살림살이 나아져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장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출발지: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전용버스, 입장료, 숙박(4인실), 여행자보험
 회비: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숙박식, 여행자 보험
 회비: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시 예약담당자문의 HP: 010-3999-3226

현재 산천어 매월 첫째주 화요일부터 07:30, 광주역 08:00, 모예회관 08:30 출발합니다.
 홈페이지: 문봉구 HP 010-3999-3226

※ 참가일정 은 전자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선장은 추후 폐지됩니다. ※ 22살: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천어 별도문의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화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호산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봉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